

강권하시는 부르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복음 선포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단지 복음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예일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심적 부담에 대해 말합니다. 위의 내용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막 8:34.}

위의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는 자들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를 의미함}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잡들게 되며 외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려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강권하시는 부르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1.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범죄 영화나 법정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정적 사건의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증거를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주저하는 일들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에 관계된 증인이라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부담에 대하여 챔버스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인 ‘간증(testify)’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전함(preach)’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설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원하는 부르심’과 ‘강권하시는 부르심’의 차이가 아닐까요? 누가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부담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 .’(막 8:34)”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여길 만큼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받을 영광,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2.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니, 부르심이 귀에 들리지 않고 공허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 참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내가 내 놓았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택함 받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챕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를 의미함)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은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라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르심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태를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 ②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기꺼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 는 의미입니다.

묵상 질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묵상 레시피 | 빌립보서 3:1-16 + 고린도전서 9:16

바울은 교회에 침입한 적대자들(2절)을 경계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6절, 용어해설 참고)

바울의 가치관은 누구로 인해 변하게 되었습니까? (7-8절)

바울이 추구하게 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8절)

바울은 신뢰하던 이전 가치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8절)

이를 통해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8-9절)

바울이 이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11절)

이를 위해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새번역).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5절)

가문의 우월성, 문화/관습/전통의 계승, 종교적 모범

여겼다(7절) (헬)헤게마이

결단의 성격이 강조된 표현, 의지적으로 변화를 가져옴

아는 지식(8절) (헬)그노시스

(히)야다(알다)를 헬라어 ‘그노시스’로 번역했다. 직접적인 교제,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한다.

발견되다(9절) (헬)휴레도

미래시제, 종말론적 성격. 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으려 한다는 의미.

잡으려고(12절) (헬)카탈라보

철학적 의미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님

짧은 기도

전능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보다 불행한 사람을 돋고 싶다고, 정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 저희의 참 모습입니다.

이 자기 도취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분심(忿心)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그래야만 저희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들

곧 주님께 사랑받고 비이기적 동기에서 봉사하려는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_진정 원하는 것(신학자) 「사귐의 기도」 544